

# “속물들’ 덕분에 연기 세포 깨어났어요”

한때 정글같은 촬영장 가기 싫어 힘겹게 버티는 주인공 보며 위로 시간 지나고나니 자신감도 생겨



배우 유다인은 3년 만에 출연한 영화 '속물들'로 "이제는 자신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웃었다. 사진제공 | 주피터필름

“신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표현할까, 욕을 섞은 대사들은 어떻게 더 실감 나게 내뱉을까. 당장 촬영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배우 유다인(35)은 영화 '속물들'(감독 신아)가 이상철·제작 주피터필름)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한동안 주춤하던 '연기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을 맛봤다고 했다. 욕망으로 점철된 약육강식의 세계로 묘사되는 극 중 미술계에서 인간됨으로 버티는 주인공 선우정의 심정에 그대로 감정 이입했기 때문이다. 그가 몸담은 영화계도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글의 세계나 다름없다. 연기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삶의 유다인이 선우정의 마음에 공감한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유다인은 뭇 말은 역할과 작품을 '뚝 부러지게' 소화하는 연기자로 평가받는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해와, 동'은 물론 '용의자' '올레' 등 영화를 통해 매년 다른 색깔의 인물을 표현하면서도 관객에 믿음을 줘

**유다인**  
▲1984년 2월9일 ▲2005년 SBS 드라마 '건빵선생과 별사탕' 데뷔 ▲2010년 영화 '해와, 동' 제3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신인여우상, 제13회 프랑스 푸르 아시아영화제 여우주연상 ▲2013년 영화 '용의자' ▲2014년 tvN 드라마 '아홉수 소년'

왔다. 3년 만의 영화인 '속물들'에서는 성숙하고 깊어진 유다인을 만날 수 있다.

그가 연기한 미술작가 선우정은 '표절도 차용미술의 한 방편'이라고 말한다. 남의 작품을 제 것 인양 베껴놓고도 예술가인 척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남들의 속물이라는 손가락질에 당당하지만 실은 가진 재능 그 이상을 바라기에 늘 불안한 상태다.

“등장인물들이 선우정을 향해 ‘재능이 없다’ ‘미술을 관두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 연민이 갔죠. ‘버틴다’는 대사가 확 와 닿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한 말은 ‘잘 될 줄 알았는데...’라는 이야기예요.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는 시선도. 저를 힘들게 했어요.”

연기 잘하는 유망주가 전부 화려한 스타의 길을 택하는 건 아니다. 각자 가치관에 따라 배우의 길을 단단히 닦아가는 이들도 있다. 유다인도 그랬다.

“그런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뭘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속물들’을 만나기 전까지 2년 정도는 촬영장에 가기도, 사람들도 무섭더라고요. 제안 받는 작품들도 있었는데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서 거절했어요. 참 쉽지 않네요.(웃음)”

속내를 꺼내던 유다인은 얼마 전 배우 조여정이 한 영화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연기를) 짝사랑 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수상 소감에 누구보다 공감했다고도 털어냈다. “상대는 받아주지 않는데 혼자 애걸복걸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연기를 해온 적도 있었다”며 “다행히 그런 시간을 지나 자신감을 찾고, 잘할 수 있는 연기에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그렇기에 '속물들'은 유다인에게 각별한 작품이다. 자신을 깨고 새로운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줬기 때문이다. 비록 허구의 캐릭터이지만 선우정으로 살아가는 몇 개월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바꿔놓았다.

“실제로 속물 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칭찬하고 다독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유다인은 최근 tvN 단막극 촬영을 마쳤다. '속물들'로 얻은 에너지를 또 다른 작품들에 쏟아내고 싶다는 그는 “연정이 섰는데도 '정화, 흥련' 같은 영화를 꼭 하고 싶다”며 크게 웃어 보였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세계적인 록그룹 U2의 보컬 보노(오른쪽)가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U2 보컬 보노 만난 문 대통령 “평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중요”

아일랜드 출신의 전설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보컬 보노(59)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평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보노는 8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밴드 결성 43년 만에 내한공연을 펼친 다음 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과 40분간 만났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노에게 “평화의 길에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노는 “음악은 힘이 세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남북 음악인들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접견은 보노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퇴치 기여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 예방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노는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 ‘월드뱅크’를 공동 설립하고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 등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사회운동가다.

문 대통령은 보노에게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내한공연을 관람했다며 “공연 도중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준 것에 대해 공감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U2는 전날 공연 말미 ‘올트라 바이올렛’을 부를 때 무대 영상으로 성평등을 위해 싸운 세계의 여성 운동가를 소개했다. 스크린에는 김정숙 여사와 일제강점기에 여성해방을 주장한 화가 나혜석, ‘미투’ 운동의 시발점인 서지현 검사,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10월14일 사망한 가수 설리 등이 등장했다. 유지혜 기자

## 현빈·손예진 “두 번의 열애설? 웃어 넘겼죠”

tvN '사랑의 불시착' 14일 첫방 “로코’ 드라마 같이 하고 싶었다”

“두 번의 열애설이요? 불편하지 않아요.”

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올해 초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뒤 처음으로 나선 공식석상에서 꺼낸 말이다. 14일 첫 방송하는 케이블 채널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인 두 사람이 출연을 확정하기 전에 열애설이 불거져 이들의 결정 배경에 시선이 쏠렸다.

현빈과 손예진은 9일 서울 종로 당주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랑의 불시착' 제작 발표회에서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싶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협상' 이후 두 번째 만남이지만 극중 납치범과 협상가라는 설정에 따라 한 공간에서 연기 호흡을 맞출 기회가 거의 없었다. 연기로서 긴밀하게 주고받는 호흡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이날 현빈은 “협상” 이후 (손예진과) 다른 장르에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빨리 성사됐다”며 “밝고 경쾌한 캐릭터를 맡고 싶은 차나에 제의를 받았다”고 했다. 손예진은 현빈과의 재회에 “인연이 있는 것 같다”며 “영화에서 부딪히는 장면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알콩달콩 깊어가는 관계 등 다양한 불거리를 공개한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열애설 이후 출연을 결정하기 까지 작품에만 집중해온 모습이 돋보였다.

현빈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재되어 있는 손예진의 모습이 이번 드라마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며 상대방의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

손예진 역시 “시놉시스를 보자마자 현빈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캐릭터와 100% 싱크로율로 완벽하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궁금증을 모은 열애설 질문에는 서로 마주보고 웃음을 터트렸다.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이들은 “그게 왜? 어때서?” 하는 분위기다.

“저희에게는 이렇게 웃어넘긴 일”이라는 현빈은 “이미 친분관계가 쌓인 상태에서 (열애설 때문에)작품 선정이 불편하지 않았다”며 “흔쾌히, 기분 좋게 선택했다”고 말했다. 손예진도 “고민하지 않았다”면서 “로맨틱코미디, 멜로 장르를 같이 하고 싶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출자 이정효 PD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두 사람의 어울림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클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손예진)와 그를 지키다 사랑에 빠지는 북한 장교(현빈)의 극비 러브스토리를 그린다. 남북한이라는 특수한 배경에 판타지 요소를 더해 극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등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의 2년 만 신작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배우 현빈(왼쪽)과 손예진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tvN 새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 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 새해 코미디영화 봇물... '제2의 극한직업' 노린다

이성민 '미스터 주'·안재홍 '해치지...' 라미란의 '정직한 후보'도 1월 개봉



이성민 라미란 안재홍

새해는 코미디가 연다. 올해 한국영화 최대 흥행 장르로 꼽힌 코미디 영화들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출격한다. 올해 1월 1626만 관객에 성공해 코미디 열풍을 지핀 '극한직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작품에 궁금증이 있다.

1월 난란히 출사표를 던진 코미디는 이성민 주연의 '미스터 주'와 안재홍의 '해치지 않아'이다. 뒤이어 라미란의 '정직한 후

보'도 관객을 찾는다. 저마다 기발한 설정과 소재, 코미디 장르에서 인정받은 배우들이 전면에 나섰다.

'미스터 주'는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국정원 요원이 판다, 군견 등과 겪는 소동극이다. 동물과 인간의 교감을 판타지로 섞어 코미디로 그린다. 2017년 코믹 범죄극 '보안관' 흥행을 함께 일군 이성민과 그 파תר 배정남이 다시 뭉쳤다.

'극한직업'으로 코미디 붐을 이끈 제작사가 꼭 1년 만에 내놓는 '해치지 않아'도 눈길을 붙잡는다. 동물마저 전부 팔려나간 폐업 위기의 동물원에서 직접 북극곰, 사

자, 기린, 고릴라, 나무늘보의 털을 쓰고 동물 흉내를 내는 직원들의 생계유지 코미디다. 소재는 다르지만 극한의 위기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5인의 활약이란 점에서 '극한직업'과 겹친다.

코미디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라미란은 '정직한 후보'를 내놓는다. 수려한 '말발'로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 선거 직전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다. 거짓말,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와 연관된 무거운 키워드를 코미디로 풀어내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해리 기자

면민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영화 '기생충', LA비평가협회상 3관왕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이 9일(한국시간) LA비평가협회로부터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조연상(송강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기생충'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을 제치고 감독상과 작품상을 받았다. 영화는 이날 발표된 토론토 비평가협회상에서도 작품상, 외국어상, 감독상을 수상했다.